

보도자료

이 자료는 1월 24일 조간부터 취급하여
주십시오. 단, 통신/방송/인터넷 매체는
1월 23일 12:00 이후부터 취급 가능

제 목 : 「시스템 리스크 서베이」 결과

- 2025년말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 및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국내외 금융·경제전문가(금융기관, 연구소, 대학, 해외 IB 등) 75명의 의견을 조사하였으며, 해당 결과는 2026년중 금융시스템의 취약 요인 분석 및 점검 등에 활용할 예정

- ① (주요 리스크 요인) 금번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은 ①'환율 등 국내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', ②'높은 가계 부채 수준', ③'주요국 통화·경제 정책 관련 불확실성', ④'글로벌 자산 시장 가격조정 가능성' 등으로 조사
- ② (금융시스템 리스크 평가)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지난 설문조사(2023, 24년 실시) 대비 감소 추세인 것으로 조사(단기: 20.8% → 15.4% → 12.0%, 중기: 44.2% → 34.6% → 24.0%)
- ③ (금융시스템 안정성 평가)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(향후 3년간)는 지난 설문조사와 비교해 상승 추세('높음' 이상 응답: 40.3% → 50.0% → 54.7%)

※ 자세한 내용은 <붙임> 참조

문의처 : 금융안정국 금융안정협력팀 과장 최은지, 조사역 엄태균, 팀장 구자천

Tel (02) 750-6754, 6616, 6889

E-mail : bankfsc@bok.or.kr

공보관 : Tel (02) 759-4015, 4016

"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bok.or.kr>)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."



(불 임)

「시스템 리스크 서베이」 결과

2026. 1.

금융안정국 금융안정협력팀



목 차

I. 금융시스템 리스크 요인 1

- ① 주요 리스크 요인
- ② 리스크 요인별 발생 시계, 발생 가능성 및 영향력
- ③ 주요 리스크 요인(단순 응답빈도수 기준)의 변동 내용

II. 금융시스템 리스크 수준 평가 4

- ① 금융시스템 리스크 평가
- ② 금융시스템 안정성 평가 및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

<참고>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개요

I. 금융시스템 리스크 요인

1 주요 리스크 요인

□ 국내외 금융·경제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*을 다음과 같이 제시

* 설문 응답자들은 5개의 주요 리스크 요인을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

○ (단순 응답빈도수* 기준) 대내 리스크 요인으로 ①'환율 등 국내 외환 시장 변동성 확대'(66.7%), ②'높은 가계부채 수준'(50.7%), ③'국내 경기 부진'(32.0%) 등을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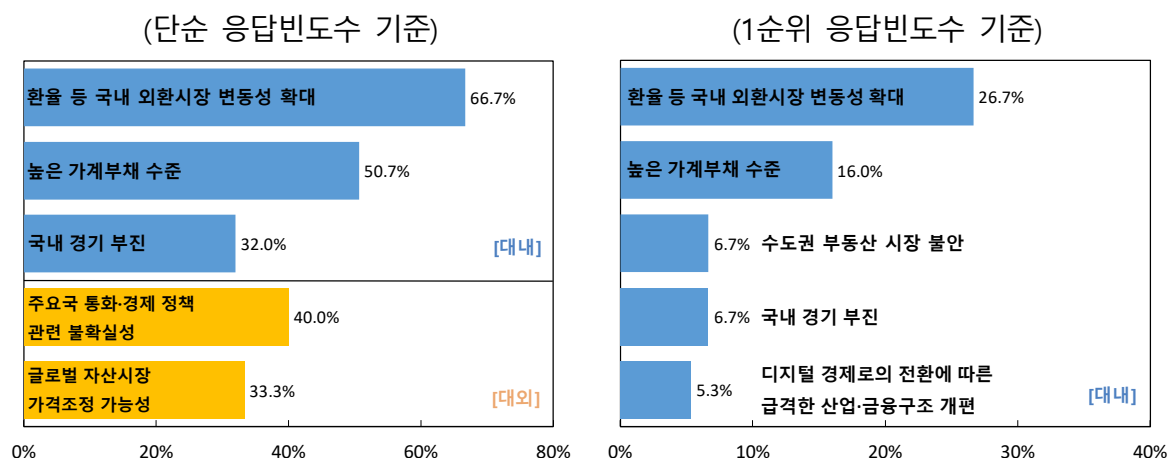
대외 리스크 요인으로는 ①'주요국 통화·경제 정책 관련 불확실성'(40.0%), ②'글로벌 자산시장 가격조정 가능성'(33.3%) 등을 지목

* 설문 응답자들이 선택한 5개 리스크 요인을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단순 집계

○ (1순위 응답빈도수* 기준) 대외 요인보다는 '환율 등 국내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'(26.7%), '높은 가계부채 수준'(16.0%) 등 대내 요인을 주요 리스크로 제시

* 설문 응답자들이 1순위로 선택한 리스크 요인을 집계

주요 리스크 요인



2

리스크 요인*별 발생 시계, 발생 가능성 및 영향력

* 단순 응답빈도수 기준 상위 6개 리스크 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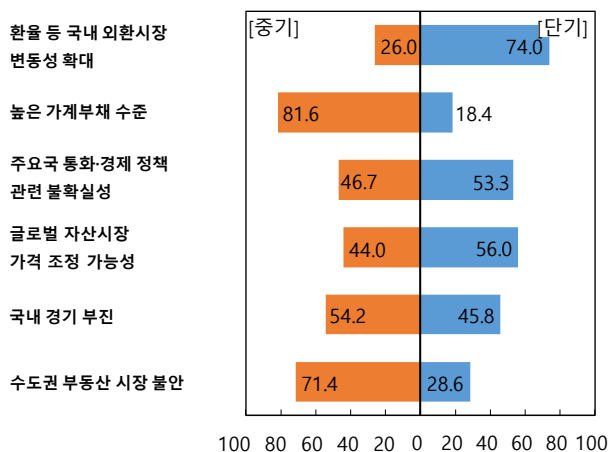
□ (발생 시계) '환율 등 국내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', '주요국 통화·경제 정책 불확실성', '글로벌 자산시장 가격조정 가능성'은 단기(1년 이내)에, '높은 가계부채 수준', '국내 경기 부진', '수도권 부동산 시장 불안' 등과 관련된 리스크는 중기(1~3년)에 위험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

□ (발생 가능성 및 영향력) 응답자들은 '높은 가계부채 수준', '환율 등 국내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', '국내 경기 부진'을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과 발생 가능성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요인으로 평가

○ 특히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요인으로는 '높은 가계부채 수준'을 지목하였으며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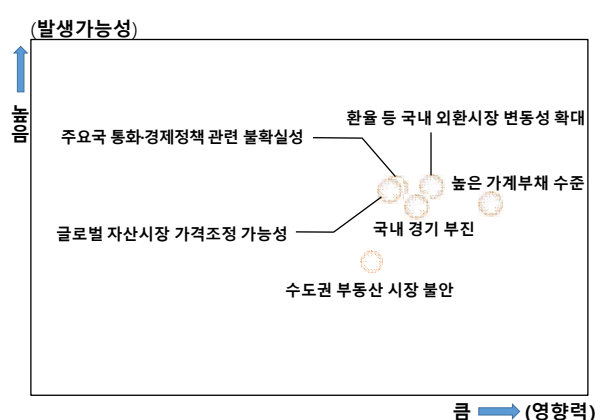
발생가능성이 큰 요인으로는 '환율 등 국내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', '주요국 통화·경제 정책 불확실성', '글로벌 자산시장 가격조정 가능성'을 제시

리스크 요인¹⁾별 발생 시계²⁾



주 : 1) 단순 응답빈도수 기준 상위 6개
2) 응답 비중(%)(단기: 1년 이내, 중기: 1~3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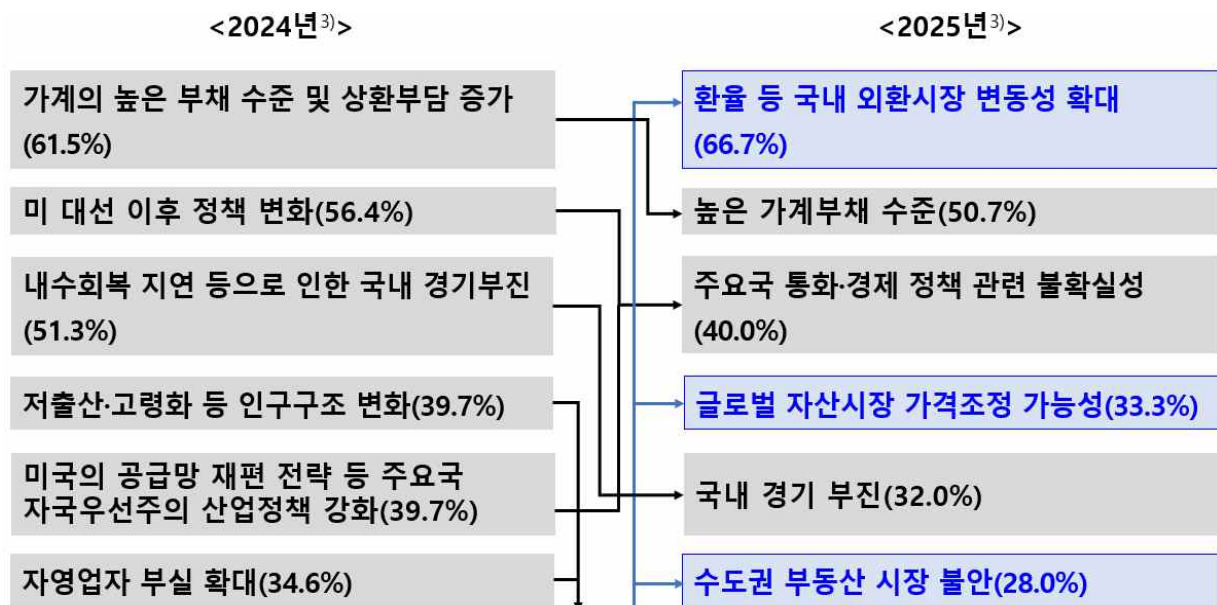
리스크 요인¹⁾별 발생 가능성 및 영향력²⁾



주 : 1) 단순 응답빈도수 기준 상위 6개
2) 리스크 요인별 상대적 위치를 나타냄

- 금번 설문조사의 **상위 6개 주요 리스크 요인**을 지난 설문조사(2024년)와 비교해보면 가계부채, 고령화 등 **구조적 취약성**보다는 **외환·자산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**가 높게 나타나는 모습
- 기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거론되던 **가계부채**는 2023년 하반기 설문조사 이래로 응답빈도수가 낮아지는 추세('23년: 70.1% → '24년: 61.5% → '25년: 50.7%)
 - '환율 등 국내 **외환시장 변동성 확대**'(66.7%), '글로벌 자산시장 가격조정 가능성'(33.3%), '수도권 부동산 시장 불안'(28.0%)이 새롭게 **주요 리스크 요인**으로 진입
 - '저출생·고령화 등 **인구구조 변화**'와 '**자영업자 부실 확대**'는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조정

주요 리스크 요인¹⁾ 변동 내용²⁾



주: 1) 단순 응답빈도수 기준 상위 6개
 2) 파란색은 신규 진입 리스크 요인
 3) 조사 시점 기준(이하 동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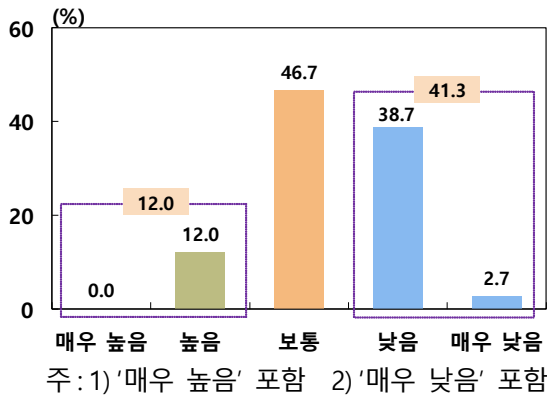
Ⅱ. 금융시스템 리스크 수준 평가

1 금융시스템 리스크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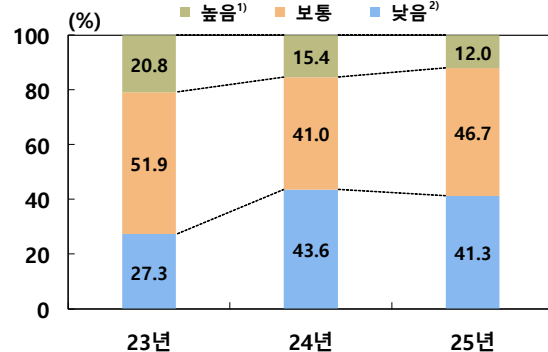
□ (단기 시계(1년 이내))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단기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지난 설문조사(2024년) 대비 하락

○ '낮음' 또는 '매우 낮음'으로 응답한 비중이 소폭 하락(43.6% → 41.3%)한 가운데, '매우 높음' 또는 '높음'으로 응답한 비중은 하락(15.4% → 12.0%)

단기 충격 발생 가능성의 분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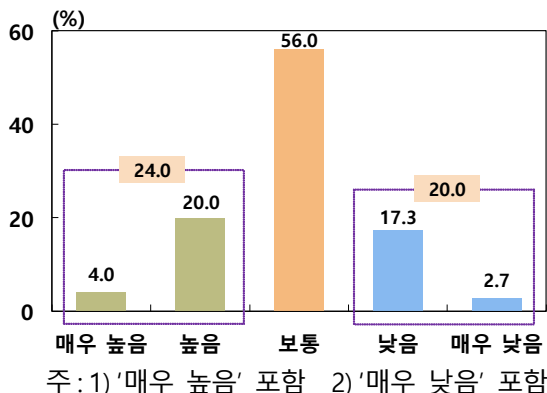
단기 충격 발생 가능성의 변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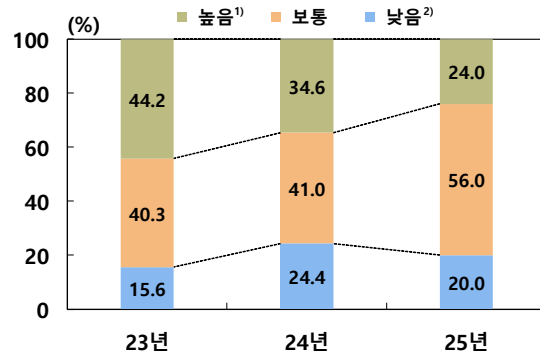
□ (중기 시계(1~3년))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기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지난 설문조사 대비 하락

○ '낮음' 또는 '매우 낮음' 비중이 하락(24.4% → 20.0%)한 가운데, '매우 높음' 또는 '높음' 비중은 상대적으로 큰 폭 하락(34.6% → 24.0%)

중기 충격 발생 가능성의 분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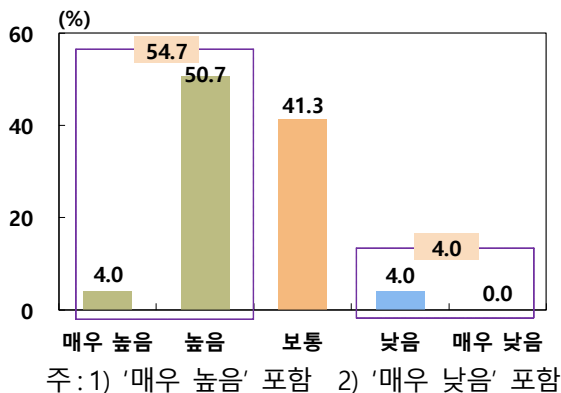


중기 충격 발생 가능성의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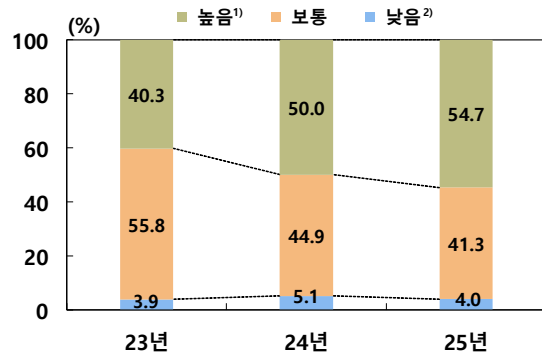


-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(향후 3년간)는 지난 설문조사(2024년)보다 향상된 것으로 조사
-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 '매우 낮음' 또는 '낮음'으로 응답한 비중(5.1% → 4.0%)은 소폭 하락한 가운데, '매우 높음' 또는 '높음'으로 응답한 비중(50.0% → 54.7%)이 상승

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



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 변화



- 응답자들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 방안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와 정책의 신뢰도 및 예측가능성 강화를 주문
- 구체적으로는 외환 및 자산시장 안정화와 모니터링 강화, 정책 당국의 명확하고 투명한 의사소통 필요성 등이 제시
-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 조합 및 차주·업권별 구조적 취약성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, 한계기업에 대한 질서 있는 구조조정 필요성 등도 언급

<참고>

「시스템 리스크 서베이」 개요

① 목적

- 국내외 금융·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12년부터 연 2회 실시, 2024년부터 연 1회로 변경

② 실시 기간

- 2025. 11 ~ 12월중

③ 조사대상자

- 국내외 금융기관 임직원 및 주요 경제전문가 총 80명
 - 국내 금융기관 경영전략·리스크 담당자, 주식·채권·외환·파생상품 운용 및 리서치 담당자, 금융·경제관련 협회 및 연구소 직원, 대학 교수 등 73명
 - 해외 금융기관 한국투자 담당자 등 7명
- 총 75명이 응답(응답률 93.8%)

④ 조사방법

- ECOS 전자설문시스템을 이용한 서베이(필요시 유선·방문을 통해 심층 면담 병행)

⑤ 조사내용

- ① 주요 금융시스템 리스크 요인
 - 발생 시계, 발생 가능성 및 영향력
- ② 금융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
 - 단기(1년 이내) 및 중기(1~3년)
- ③ 향후 3년간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신뢰 정도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방안 등